

부모은중경·우란분경·육방예경·대승본생심지관경·육야경·선생경·승만경·관무량수경·무량수경·범망경·자재경

가정의 달 경전 읽으며 가족화목

부모 형제 자비행 첫 대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이 들어있어 가정의 소중함을 한층 되새겨 보게하는 달이다. 가정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의 근간이 된다. 가족간의 사랑과 효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전을 가족들이 함께 읽어보는 것도 부처님오신날(14일)이 들어있는 5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효경전인 <부모은중경> <우란분경>을 비롯 <육방예경> <대승본생심지관경> <육야경> <선생경> <승만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범망경> <자재경> 등에서 효와 가족의 화합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다는 것을 10가지로 설명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가르치는 널리 알려진 효경전이다. <우란분경>은 부처님의 10대제자 가운데 한사람인 목련존자의 예를 통해 불교적인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육방예경>은 세속적인 인간관계의 예의범절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경전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등을 설명하고 있다. 부모은(父母恩) 중생은(衆生恩) 국왕은(國王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도 부모의 은혜를 으뜸이라고 말한다. <관무량수경>에서는 누구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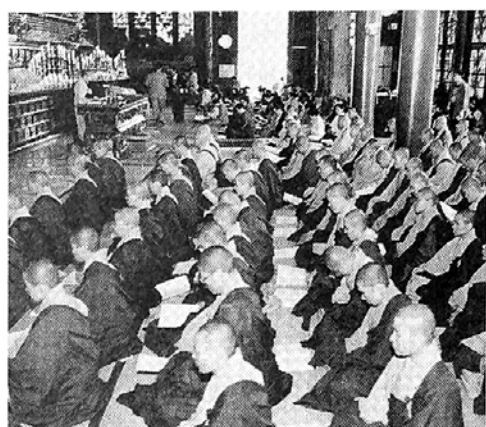


◇효심의 근본사찰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 있는 부모은중경탑.

“효도는 정도왕생의 길”

는 먼저 부모를 봉양해야하며 정도왕생에는 효도가 으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친척사이에 서로 경애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말과 안색이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무량수경>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또 <범망경>에서는 부모형제가 돌아가신 날에 법사를 청해 보살계율경인 <범망경>을 강설하여 망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였다. 이상의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 가르치는 효는 그 근본을 자비에 두고 있다.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서원법에서 가정윤리의 근간인 효와 화합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자비행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 부모형제이며 자비를 바탕으로 한 효가 실현되는 기초 토대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일상용어와 쉬운 비유로 따뜻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들 경전은 현재 단행본과 또 한글대장경 영인본 등으로 선보이고 있다. <부모은중경>의 경우 사경책을 비롯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도 나와 있어 가족과 함께 가까운 서점을 찾아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초의선사를 기리는 추모법회가 지난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책으로 보는 ‘茶禪一味’

우리나라 차문화는 중흥발전 시킨 초의선사가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됨에 따라 차와 초의 선사를 기리는 많은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초의선사의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사상을 깊이 체득케 하고 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차 관련 도서를 표로 소개한다.

◇茶 관련 도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차의 선	석성우	토방
다도학	김명배	학문사
차의 과학과 문화	김종태	보림사
차와 瞑想	이중해	초지
차와 건강	유태종	동지
전통차	강우석	사회교육연구원
차의 고향을 찾아서	연호택	대경출판사
한국다예	석용운	초의
차의 미학	고세연	초의
차이야기 禪이야기	석명정	대원정사
한국차생활총서	김승희	서울출판
한국茶文化	정영선	너럭바위
차 우리차와 건강	윤기식	성림
차문화유적답사기 상·중·하	김대성	불교명사
차는 인간을 맛있게 해준다	천병식	초의
차요리	이연자	초롱
차한잔	박희준	신어림
차와 시와 그림	석성우	다보
다도철학	정영선	너럭바위
초의선집	김봉호	경서원
초의선사전집	용운	이세아문화사
중국의 다도	김명배	명문당
茶道學論攷	김명배	대경문화사
禮茶論	손민영	보림사

출판기소식

초파일 특화코너

책방여시아문 31일까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책방 여시아문이 5월 한달간 ‘부처님오신날 불서 특별판매전’을 마련한다. 특별판매전에는 부처님 일대기, 경전, 법어집, 기초개론서 등을 비롯 50여종의 불교관계서적을 전시 판매한다. 또한 재미있는 만화경전,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쉽게 배우는 교리 등 어린이를 위한 코너도 준비되었다. (02)737-0695

책방 여시아문은 또한 부처님오신날인 14일에는 마포 석불사(주지 관매전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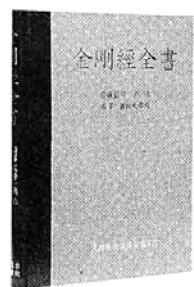
‘용인 문화유산 총람’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발 앞서 향토문화연구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온 용인문화원(원장송재권)이 97년 문화유산총람의 해를 맞아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을 간행했다. 선사시대 유물유적에서부터 고분, 사적지, 미술 공예 민속자료, 기념물 등 방대한 내용을 총 6백74쪽에 담았다. 이 책은 관련 사진과 함께 용인 지역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천과정등을 상세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향토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다. (비매품)

‘금강경 전서’ 발간

승가대학원, ‘...오가해’·원전·번역본 등 묶어

조계종 교육원 부설 승가대학원(원장 무비)에서 전통강원의 교재로 사용되는 금강경오가해와 산스크리트 원전, 그리고 금강경의 구마라집, 보리유지, 진제, 굽타, 현장, 의정 등이 번역한 여섯가지 한역을 한데 묶은 <금강경 전서>를 발간했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면서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강경>이다. 부처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방의 말로 나의 가르침을 설하라’ 하셨다. 중국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경전번역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산스크리트

원전의 한문번역시 어순의 변경, 한역의 문장수식의 한계, 반복되는 문장의 삭제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여러 번역가들에 의해 번역된 금강경을 한자리에 모아 상이한 언어구조로 인해 미진한 부분을 다른 번역본들과 대조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전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 당시의 역경가들의 시대적 언어와 문법 그리고 사상적 경향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들 통해 경전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고 당시의 역경가들의 시대적 언어와 문법 그리고 사상적 경향도 엿볼 수 있게 했다.

새로나온 책

▲**명산답사기**=산을 인공의 대상으로 여겨 가까이하기를 즐긴 옛 선비들의 명문을 한자리에 모아, 시대별 내용별로 정리한 책. 백두산,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북한산 등 총 15권의 답사기행기가 실려 있다. 이곡, 임춘, 석천인, 이규보 등이 쓴 고려시대의 작품에는 명산에 얽힌 사찰의 유래나 불교적 고증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출판사 7천5백원)

▲**절로 절로**=경남직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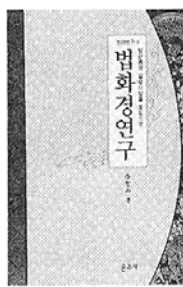
교문동본부와 불교신행학교 지도법사로서 대중불교 생활불교운동을 통해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자원스님의 수상집. 생활속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불법의 진리를 담담한 문체로 표현해 우리모두가 더불어 사는 화합의 길

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5천5백원> ▲**생명문화기행**=건강에 유익한 토속 먹거리와 무공해 명산대천을 소개한 생명문화기행서. 자연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이 책은 문명사회의 췌바퀴속에서 반

법화경 결집 교리·사상적 배경 고찰

법화경 연구 서성우 지음

화제의 책



법화경 방편 품을 대소승의 정법은쟁이라는 시대상황과 연계시켜 일승 사상을 중심으로 쓴 법화경 연구서. 동국대와 승가대 강사인 서성우는 법화경의 성립시기로 추정되는 기원 1~2세이전, 대승불교의 기원부터 대소승의 정법 논쟁이 야기된 일련의 과정과 법화사단의 성립등 새로운 불교운동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또 법화경 일승사상의 전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편품을 법화경의 중핵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법화경 결집의 교리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해 법화경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는 입문서로서의 역할도 할것으로 기대된다. (운주사 1만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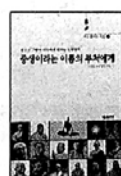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원	가람기획
2	생관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3	기도	일타	효림
4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정빈	동지
5	그까지 살 줄있으면 어때	학림	여시아문
6	49재 공덕과 의미	권집부	이바지
7	도술전에서 만남시다	장순용	세계사
8	고요한 숲속의 연못	김열권	고요한소리
9	그 마음을 비쳐라	김재용	용화
10	힘든세상 도나 닦지	효림	가서원

구입문의:(02)737-0695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중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크스님/범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위음 신국판 34쪽 /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을 말로 삼는 우리들의 크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 하니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크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을 말’인 까닭이다.

삶은 썩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경/4년/범어집



혜원 위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古)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망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일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뿐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기다기 신이 막히면 넓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짐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비(般若)로 건너고 금강의 힘(金剛)으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비요 금강의 힘.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제이다. - 본문 중에서 -